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영어억양교육의 문제점*

On the Problems of English Intonation Representation in English Textbook

오 세 풍** · 장 영 수** · 이 용 재**

Sei-Poong Oh · Young-Soo Jang · Yong-Jae Lee

ABSTRACT

In English textbooks, there are three kinds of English intonation representations: Trager & Smith's, Weak-strong, Audio-lingual way.

Each representation has its merits and demerits. Therefore, just one of them is insufficient to represent English intonation properly. Trager & Smith's representation is relevant to show holistic intonation itself. In contrast to this merit, it is not appropriate to represent downstep, declination, etc. With Weak-strong, it is good to show weak and strong point in the sentence. It is not, however, consistent with intonation. Instead of these representations, some textbooks accept Audio-lingual method. Audio-lingual method gives students more chances to hear native speakers' intonations. But it doesn't give ways to understand English intonation itself.

In English textbooks, they don't have any hierarchies dependent upon students' proficiency. In spite of various intonations, they just accept a few limited intonation models.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all kinds of intonation representations and to develop more advanced and relevant English intonation representation.

Keywords: Intonation, Downstep, Declination

1. 서 론

현재 영어교육에 있어서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억양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교과서에 나타난 억양패턴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억양표시 방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억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 상의 억양표시 가운데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억양표기방식상의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핵심분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표기자체의 정확성의 문제이며,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년에 상관없이 중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년에 걸쳐 표기된 억양의 형태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동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점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교사의 문제를 제외한 억양표기방식상의 문제, 표기의 정확성의 문제, 그리고, 학년과 수준에 따른 수준별 억양표시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억양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발음 및 영어억양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현행 교과서 상에 나타나 있는 영어 억양에 대한 표기방식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국식 억양표기 방식에 따른 단계식 억양표시법, 둘째, 부분적으로 영국식 표기법을 가미한 강약표기법, 셋째, 도식에 의한 억양표기법을 생략하고 개별어휘의 발음 및 시청각자료로 대체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기 방식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영어 억양 교육 전반에 있어서 이 중 한 가지 방식을 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미국식인 단계식 억양표기법의 경우 전체적인 억양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단일 어휘 내에 존재하는 이중성조의 표기나, 단계하강의 표기 및 억양구의 표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김기호 1999a, 1999b; 박순복 2000 등 참조).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강약표기법의 경우 개별어휘의 강세와 문장 내 강세의 위치 및 어휘의 강약의 정도를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것을 문장 전체의 억양실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와 같은 강세와 억양의 개념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되고 있는 시청각자료에 의한 억양교육의 대체방식은 수용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원어민의 억양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영어억양전반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교과서 상에 존재하는 억양표기방식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가 상위 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학습능력과 다양한 표현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채,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교과서에 극히 제한된 숫자의 억양패턴과 동일한 종류의 억양패턴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1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억양패턴

2.1.1 조사대상 교과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 학년의 경우 대한교과서, (주)두산, 디딤돌, (주)천재교육의 4 개종(2000년 검정)이며, 2 학년 교과서는 3 학년 교과서의 저자와

동일저자인 관계로 3학년 교과서로 대체하였다. 3학년 교과서의 경우 (주)두산, 시사영어사, 지학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경우 (주)두산, 시사영어사, 지학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1.2 조사대상 음성자료

음성자료는 교과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음성자료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교과서에 첨부된 음성자료 외에 서울 K 대학 국제어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여성 원어민 화자에 게 교과서에 표시된 억양표시지문들 중 일부를 4회 녹음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국인 화자의 음성자료는 오세풍 외(2001)의 음성자료를 활용하였다.

2.1.3 실험절차

녹음은 DAT 녹음기를 사용하여 22,000 Hz의 표본율(sampling rate)로 녹음하였고, 소음이 적은 장소를 선택해 녹음하였다.

분석은 UCLA에서 만든 분석프로그램인 Pitchworks ver. 5.3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2.1.4 조사결과

조사 결과 나타난 각 출판사의 강세유형과 억양패턴은 다음과 같다.

표 1. 출판사별 강세표기유형

학년	출판사	T & S	강약표기법	configuration	오디오교재
1학년	대한교과서	○	○	○	○
	(주)두산	○	×	×	○
	디딤돌	○	×	×	○
	천재출판사	×	○	○	○
3학년	(주)두산	×	×	×	○
	시사영어사	○	×	×	○
	지학	○	×	×	○
고 1	(주)두산	○	×	×	○
	시사영어사	○	○	×	○
	지학사	○	×	×	○

* T & S: Trager & Smith

* Configuration: 그림을 이용한 영국식 강세표기법

표 1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강약표기법과 영국식 강세표기법이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미국식 단계식 표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억양별 빈도수로 나타내면 미국식 단계표기법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를 보자.

표 2. 억양별 빈도수

	학년	T & S	강약표기법	configuration	계	비고
중학교	1 학년	48(43%)	16(14%)	6(5%)	70	표기오류 (25)
	3 학년	19(17%)	0	0	19	
고등학교	1 학년	22(20%)	1(0.89%)	0	23	
	빈도수	89(80%)	17(15%)	6(5%)	112(100%)	

* 표기오류: 억양표기방식이 교과서에 사용한 방식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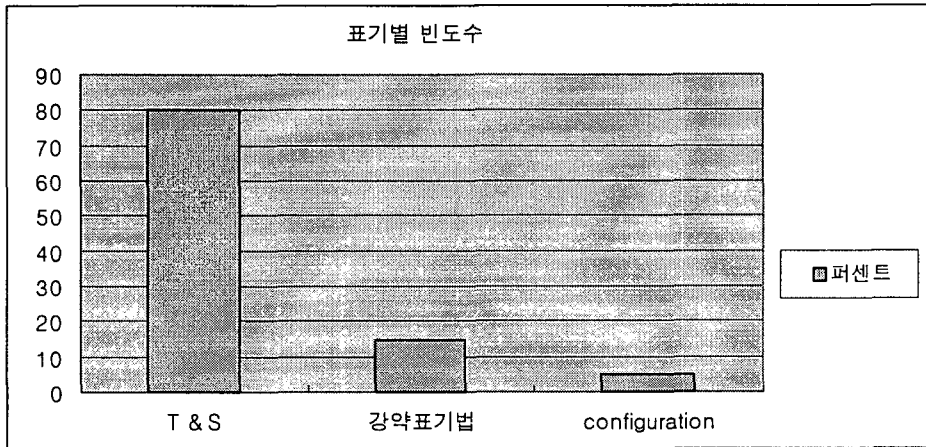


그림 1. 교과서에 표현된 억양표기방식별 빈도수

표 2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억양표기법 가운데, 미국식인 단계식 억양표기법이 전체 억양표기법의 대부분인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다양한 억양표기법을 볼 수 있고 오히려 고학년에 진학할수록 교과서 지문에 나타나는 어휘 및 문장형태의 다양성에 비해 이러한 다양성을 표시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억양표기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교과서 가운데 고등학교 교과서 1 개 출판사만이 동일한 문장구조 내에서 의미에 따른 다양한 억양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주로 저학년에 교과서에 억양에 대한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고학년에 올라 갈수록 오히려 억양에 표시에 대한 종류 및 빈도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다양해지는 어휘나 문장구조에 비해 실제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억양은 저학년에 비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억양패턴도 일반적인 평서문에서 볼 수 있는 하강조의 억양과 의문문에서 볼 수 있는 상승조의 억양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억양패턴에 준언어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다양한 의미의 차이를 갖게 되는 다양한 억양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교과서 억양표기를 통해 영어의 억양이 갖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을 익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중 3 교과서와 고등학교 1 학년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는 억양패

턴을 비교해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교과서에 표현된 억양패턴을 비교해 보면 전체 억양패턴 가운데 기본억양패턴이라 할 수 있는 하강조의 억양인 2-3-1, 또는 이 형태의 활용형태인 2-3-2-3-1의 패턴이, 표기된 억양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급학년에 진학해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억양패턴 이외에는 다른 억양패턴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표 3. 중3, 고1 교과서에 나타난 단계식 억양 빈도별 분석(오세풍 외 2001)

출판사	억양패턴						총계
	2-3-1	2-3-2-3-1	3-2, 3-1	3-1	2-3, 3-1		
중3							
지학사	4	7	2	0	0		13
시사영어사	3	0	0	2	1		6
두산	강세, 음절, 연음과 관련된 패턴 연습 및 듣기 테이프 대체						
계	7(17%)	7(17%)	2(5%)	2(5%)	1(2%)		19(46%)
고1							
지학사	2-3-1	2-3-2-3-1	3-2, 3-1	3-1	2-3, 3-1	2-3	
지학사	2	1	0	0	0	4	7
시사영어사	1	1	0	0	0	1	3
두산	1	9	0	0	0	2	12
계	4(10%)	11(27%)	0	0	0	7(17%)	2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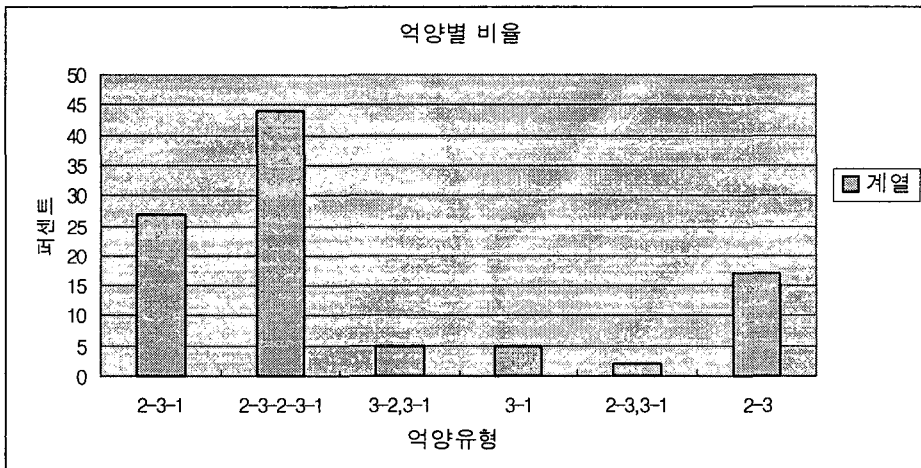


그림 2. 교과서에 표현된 중 3, 고 1의 억양별 비율

표 3을 살펴보면 담화의 의미상 단정적인 의미와 문장의 종료를 나타내는 하강조의 억양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억양패턴이라 할 수 있는 2-3-1, 또는 2-3-2-3-1 형태의 억양이 전체의 억양표시의 대부분인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하강조의 형태인 3-2, 3-1 또는 3-1 형태는 전체의 10%정도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상승조의 억양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상승억양은 볼 수 없고 단순의문문에서나 볼 수 있는

2-3 형태의 억양패턴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상승조의 억양으로는 강조나 의구심 그리고 동의의 구하기 위한 억양에 사용되는 저성조의 억양(L* L-H, L* H-H%)의 표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놀라움이나 뒷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사용하는 말미억양의 상승에 적합한 억양형태(L-H%)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교과서 상에 표시된 억양형태를 원어민의 발화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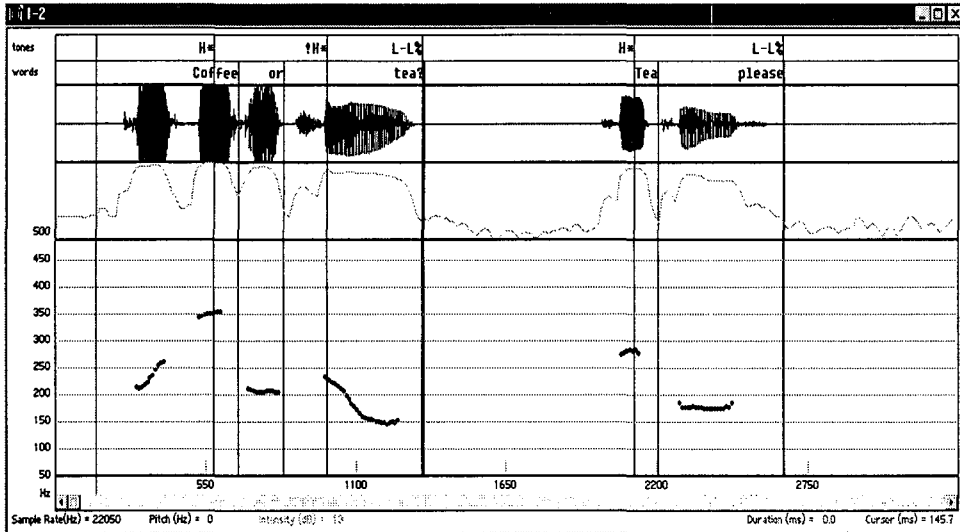


그림 3. Coffee or tea? Tea, please.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원어민의 발음형태를 살펴보면, 'Tea, please' 부분의 'Please'에서 억양구 해지 현상(H* L-L%)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억양구 해지 현상은 담화의 앞에 주장세가 주어지면 뒤따르는 강세가 deaccenting 되는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원어민에게서 보이는 억양구 해지 현상과는 달리 교과서 상에 보이는 억양표시 방식에는 억양구 해지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교과서상의 억양 표시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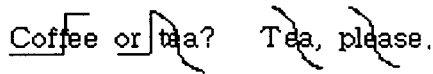


그림 4. Coffee or tea? Tea, please.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은 'tea' 외에도 'please'에 또 다른 강세가 부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내용에 주장세를 부여하는 현상은 앞선 선행연구(박순복 2000, 오세풍 외 2001)들에서 한국인의 영어억양실현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 한국인 화자의 영어 억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들은 공교롭게도 교과서 상의 억양패턴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2-3-2-3-1과 같은 억양패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내용에 강세를 부과하는 모습과도 일치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원어민들이 주장세가 부여된 후 이후에 나타나는 강세에는 강세를 실현하지 않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다음으로는 조건문의 억양에 나타나는 억양현상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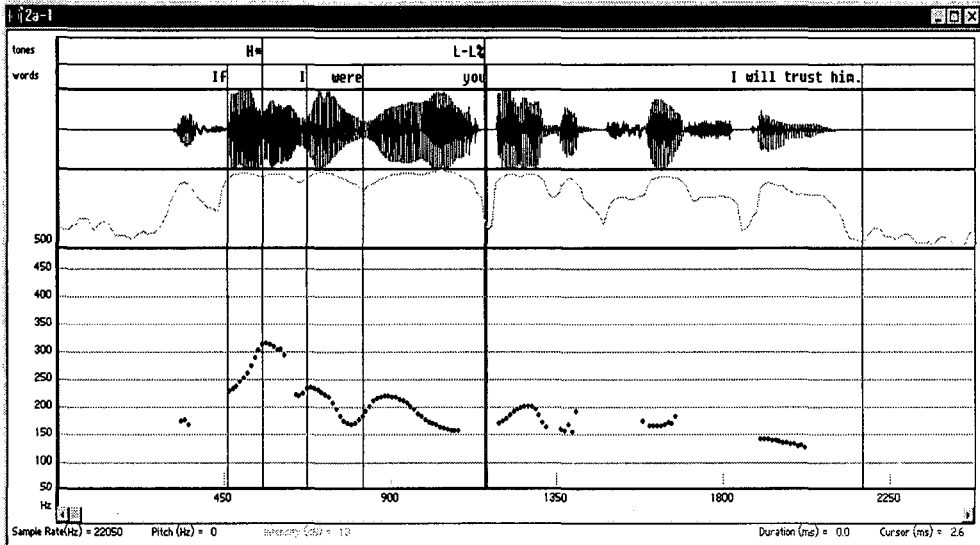


그림 5. If I were you, I will trust him.

그림 5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건문의 말미에서 보이는 하강조의 억양이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용어 'I'에서 볼 수 있는 강세부여 현상과 이후에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하강과 declination 현상이다. 문장의 말미에서 볼 수 있는 하강조의 억양은 'If'라는 어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적의미로도 상승조의 억양이 나타내는 문장의 비종료성을 나타내는 데 충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는 이와 같은 조건문이 갖고 있는 특수한 조건, 즉 조건절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상승조의 억양으로 실현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하강조의 억양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If'로 시작하는 조건문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따라서 평서문의 억양인 하강조의 억양과 조건문의 억양인 상승조의 억양표기법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If I were you, I would trust him.

If these trees die, we will tie, too.

그림 6. 교과서에 표기된 억양형태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조건문의 억양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문장의 첫머리에 강세를 갖는 문장에 대한 강세표기현상을 살펴보자. 현행 교과서에 나타난 Trager & Smith 식의 억양표기방식에서는 문장의 첫머리에 강세가 오는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Millions, I believe.

Not knowing what to say, I kept silent.

그림 7. 교과서에 표기된 억양형태

그림 7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억양형태는 문장의 첫머리에 강세가 오는 억양의 경우 마치 문장의 말미에 나타나는 상승조의 억양(2-3)을 문장의 첫머리에 실행한 것과 같은 3-2 형태의 하강조의 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마치 문장의 첫머리가 높은 곳으로부터 하강하는 현상으로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원어민의 억양형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표기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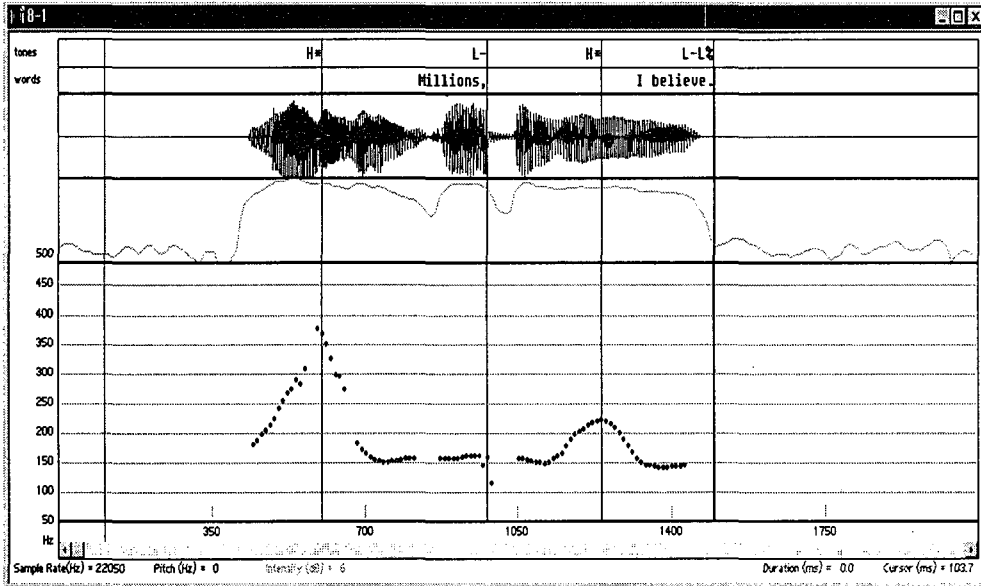


그림 8. Millions, I believe.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은 'Millions, I believe.'의 경우 ToBI(Tone Break Indices) 표기 형식을 따르면 'L-H* L-L%' 또는 'H* L-L%'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은 문장의 앞

머리에 있는 'million'의 첫음절에 강세가 있음으로 인해 상승-하강조의 억양으로 실현되며 동시에 강세가 부여되는 것이지, 이것이 문장의 첫머리 높은 곳에서 하강하는 형태의 억양(3-2 또는 H%-)과는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볼 수 있는 문장의 첫머리에 강세가 있는 담화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그림 8과 같은 억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계식 억양형태로 표기된 교과서의 억양표기 방식이 문장 첫 머리에 나타나는 강세 표현에 적절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영어억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부가의문문에 표기된 억양의 형태를 살펴보자. 영어에서 표기되는 부가의문문의 경우 문장의 형태에 따라 상승조 및 하강조의 억양으로 실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의 억양표기법의 경우 부가의문문이 갖고 있는 '화자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의미를 해석하는 까닭에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억양과는 상반된 경우를 보이기도 한다.

You are not, are you?

그림 9. 교과서에 표기된 억양형태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억양의 형태는 하강조의 억양으로 구현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형태의 억양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억양패턴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부가의문문의 경우에도 문맥에 따라 상승조의 억양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 상의 표기방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부가의문문의 억양에 대해 단순한 해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억양의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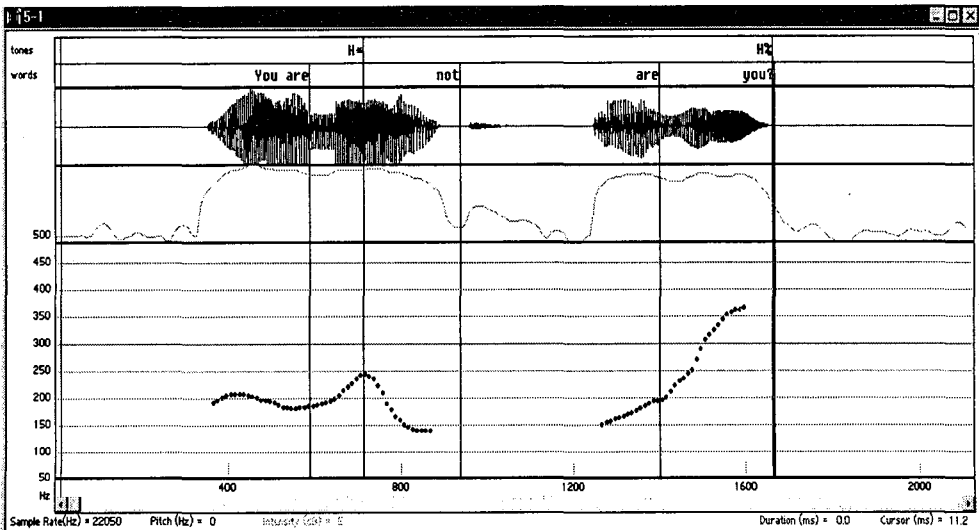


그림 10. You are not, are you?

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해보면 문장의 말미 경계역양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교과서의 표기상 하강조의 억양으로 표기된 부가의문문의 억양이 실제로는 상승조의 억양으로 구현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이 표현될 수 있는 억양을 예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 다른 음운표기를 비교해 보자. 영어의 음운표기에서 강세를 받은 여러 음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음절이 주장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예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억양표기법에서 볼 수 있다.

It certainly is.

그림 11. 교과서 억양표기

그러나, 이와 같은 표기법도 앞에서 설명한 음운적 이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강세를 받은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부여한 형태로 교과서에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원어민 화자들의 일반적인 억양패턴과는 다를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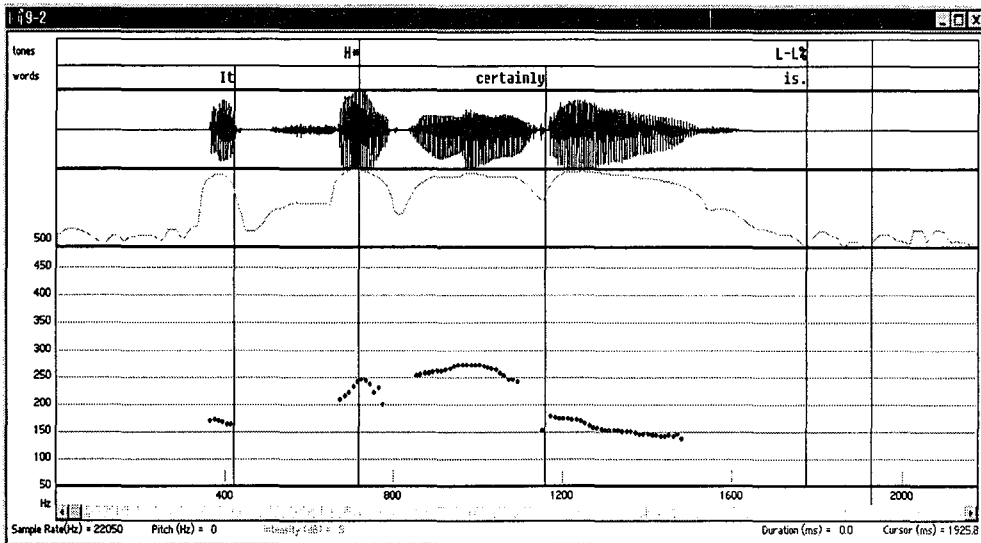


그림 12. It certainly is.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s'에 강세가 오는 것과는 달리 'certainly'에 주장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문장의 의미 해석에 차이를 보이는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어민의 경우 어떤 문맥에 한정된 특별한 의미를 두어 제한하지 않을 경우 교과서에 표시된 억양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발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강약표기법으로 표기된 억양형태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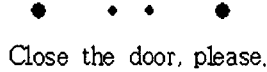


그림 13. 강약표기법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어 위에 크기를 서로 달리 하는 방점을 찍어 강세와 억양 표기를 병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표기법의 장점으로서는 강세의 위치와 문장 중에서 개별 어휘가 차지하는 어휘의 비중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휘에 강세를 표기한 방식으로 강세 및 문장전체의 상승과 하강의 연속으로 구성된 억양표기를 대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원어민 화자의 경우 모국어 화자인 까닭에 개별어휘의 강약을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억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영어와는 다른 형태의 억양을 갖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화자에게 단어 위에 간단히 표기된 강세표기만으로 원어민 화자들이 보여주는 억양형태를 구현하기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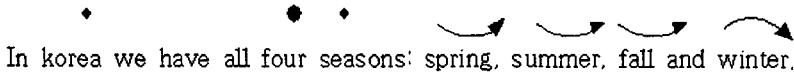


그림 14. 강약표기법과 영국식표기법을 병행한 교과서 표기방식

그림 14는 강약식 표기법의 보조수단으로 그림을 통한 강세의 진행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기방식 역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이와 같은 표기방식이 갖는 장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승조의 억양과 하강조의 억양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승조로 표시된 억양의 경우 단순한 상승조의 억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강-상승조의 억양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강조의 억양의 경우에도 그림 14에 나타난 그림을 단순히 하강조의 억양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하강조의 억양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영국식 표기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교과서의 경우 영국식 표기방식이 갖고 있는 다양한 표기방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상승 또한 하강조의 억양을 표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실들은 현재 교과서의 억양표기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억양 교육이 한국인 화자의 영어 억양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한국학생들의 영어발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한국인의 영어 억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를 비교해 볼 때, 원어민 화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 화자만의 독특한 형태의 억양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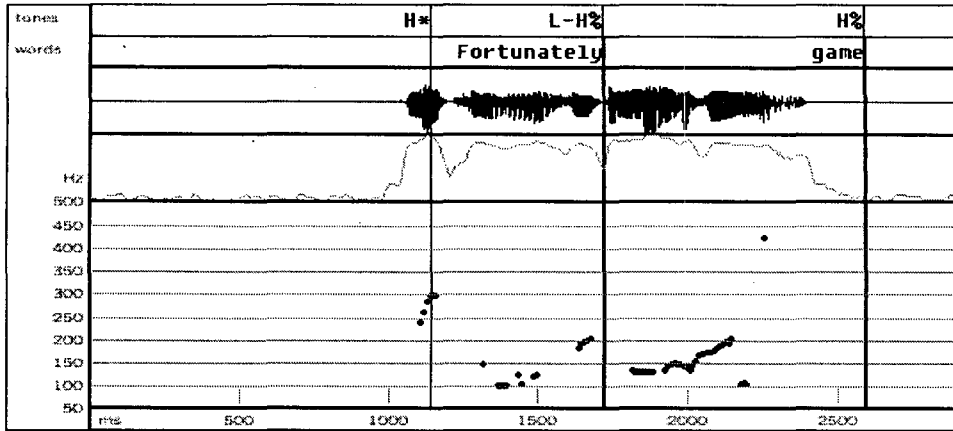


그림 15. 원어민 화자의 억양패턴: Fortunately, he can win the game. (오세풍 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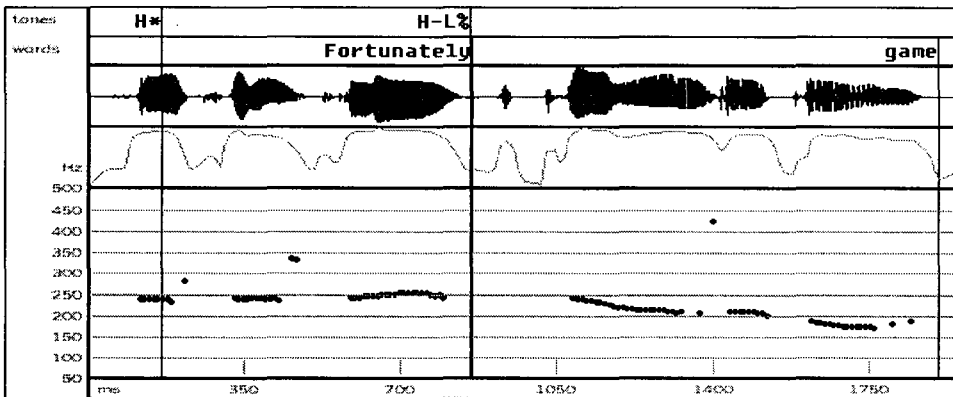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인 화자의 억양패턴: Fortunately, he can win the game. (오세풍 외 2001)

그림 15와 그림 16을 비교해 보면 한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억양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15의 경우 'Fortunately'와 같은 부사에서 나타나는 상승-하강-상승조의 억양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으나 그림 16에서 나타나는 한국인 화자의 억양의 경우 상승-하강-상승조의 억양의 구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상승-하강-상승조의 억양이 현행 영어 교과서에의 표기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상승-하강-상승조의 억양으로 구현되는 불확실성 또는 문장의 비중요를 나타내는 억양(H* L-H% 또는 L*H L-H%)을 구현함에 있어 한국인 화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인 화자가 개별 어휘에 강세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전체적인 억양패턴과는 일치하지 않아 문장전체에 걸친 억양패턴이 부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과서의 억양표기법의 문제점, 표기자체의 부정확성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한국인 화자의 경우 주장세가 부여된 후 억양구해지 현상이 일어나는 억양의 구현에 있어서 원어민에 비해 현저하게 부정확한 억양패턴을 보

이는 것을 볼 수 있다.

3. 결 론

위의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먼저 미국식인 단계식 억양표현법의 경우 영어억양의 음성적 실재를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그림 7참조). 그림 7과 같은 형태의 억양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억양패턴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7을 나타낸 그림 8에서 보이고 있는 억양의 형태는 상승-하강조에 가까운 모습이다. 동일한 문장의 경우에도 그림 7보다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억양의 형태가 억양을 이해하는 데 보다 적합해 보인다. 이와 같은 형태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억양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과 이에 대한 이해의 틀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의 틀은 ToBI 체계인 'L-H* L-L%' 또는 'H* L-L%'와 같은 억양형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둘째, 단계식 억양 표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강약표기법의 경우 어휘의 강세와 문장내의 강세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이것을 영어의 억양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을 위한 억양패턴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그림 15와 16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한국인 화자의 경우 강세와 억양을 제대로 구분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강약표기법의 경우 어휘와 문장의 강세의 강약의 표기에는 적합하나, 강세 이후에 나타나는 억양의 흐름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그림 14 참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세와 결합된 상승 또는 하강을 나타낼 수 있는 억양의 방향 및 정도의 표시가 필요한데 이것 역시 ToBI 체계에서는 준언어적인 의미까지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상승조의 억양의 경우에도 상승 정도에 따른 서로 다른 표시(H-H%, L-H%, H-L%)가 가능하며, 억양의 상승/하강 등이 있을 경우 간단한 표기방식으로 이를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4의 경우 상승과 하강의 억양전반에 걸친 모습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은 제공하고 있으나,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억양의 모습을 제공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또한 그림 14의 경우 동일한 상승조의 억양의 반복과 말미에 나타나는 단순한 하강조의 패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문장 전체적인 단계적인 하강의 경우(downstep 또는 declination)를 표현하는 것과 문장말미 종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락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억양의 하락(H* !H* !H*: 그림 5 참조)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림 5와 같은 시각적인 자료와 ToBI 체계를 사용한 표시가 동시에 표시된다면, 단계식 표기방식으로 단순히 2-3-2-3-1과 같이 표기하거나, 화살표를 통한 상승 또는 하강조의 단순표기방식에 그치는 것보다 시각적, 논리적 형태를 제시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단계식 표기법, 강약표기법 등에 부분적으로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영국식 표기법은 경계성조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 억양전반에 걸친 표기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억양에 대한 정확한 표기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억양교육 패턴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확한 억양패턴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억양패턴, 예를 들어 문장내의 강

세를 받는 어휘와 말미억양의 상승조, 하강조, 수평조, 상승-하강, 하강-상승조의 억양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각적 인식이 가능한 그림형태와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억양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각각의 억양형태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억양의 형태는 학년별, 수준별 구분을 두어야 하며, 고학년에 올라 갈수록 동일한 억양패턴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준언어적 요소들이 가미된 억양형태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억양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승조의 경우에도 저성조의 상승(L-H%)나 이미 상승된 형태에서의 상승(H-H%: upstep) 또는 상승된 억양을 유지하는 형태(H-L%)등은 기존의 단계식 표기나 영국식 억양방식을 통해서는 표기하기가 어렵지만, ToBI 체계를 사용하면 좀더 세밀하게 억양과 의미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영어 억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반드시 수준과 학년에 따른 다양하고 적절한 억양표시법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억양패턴, 예를 들어 평서문의 하강조 억양, 의문문의 상승조 억양 등은 중학교 저학년에 교과서에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준언어적 요소들이 가미된 억양이나 한국인들이 특히 구현하지 못하는 특정한 억양, 예를 들면, 억양구 해지 현상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상승-하강-상승조의 억양이나, 부사와 같이 개별적인 어휘 내에 존재하는 의미의 다양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억양형태를 보이는 특수 억양의 형태 등은 학생들이 문장의 중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상급학년의 교과서에는 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학년별, 수준별 억양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를 찾아보기 힘들다.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99a. "억양 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6, 119-143.
 _____. 1999b. "영어 억양음운론에 의한 억양의미 분석." *음성과학* 7, 109-125.
 박순복. 2000. *영어 억양학습과 억양의 음운적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세풍 외. 2001. "영어의 문장부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억양특성분석." *음성과학*, 8(2), 119-132
 Bolinger, D.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Melody in Grammar and Discourse*. Stanford University Press.
 Cruttenden, A. 1986. *Into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dd, D. R. 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Indiana University Press.
 Pierrehumbert, Janet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IT.
 Pierrehumbert, Janet. & Julia Hirs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71-311.
 Pike, K. 1945/1947.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Trager, G. L. & H. L. Smith, Jr. 1957.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3

접수일자: 2001. 10. 31.

게재결정: 2001. 12. 7.

▲ 오세풍

서울시 관악구 신림13동 706-6 (우: 151-881)

Tel: +82-2-864-7833 (H)

E-mail: oseyu@hanmail.net

▲ 장영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jangyoungsoo@hotmail.com

▲이용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3 (O)

E-mail: yjaelee@korea.ac.kr